

한국지식재산협의회, 지식재산 대·중소기업 상생에 나선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의회는 지식재산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노하우 멘토링 사업
극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특허청의 지원하에 설립된 KINPA는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분과위원회 활동,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지식재산 노하우 공유 및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로 대기업이 회원인 단체이다.

이번 사업은 주로 KINPA 회원사 내 업무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실무자들이 멘토가 되어 비회원 중소기업 인력에게 지식재산 업무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이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멘토링 주요 대상은 지식재산 소송 및 분쟁,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 라이선스 업무 등 지식재산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기존의 지식재산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이론위주의 내용보다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실무 노하우 위주로 멘토링을 실시하게 된다.

“특허, 경매로 거래하세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상시 경매시
극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를 새롭게 단장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판매·구매기술 목록을 제공하고, 지역별·기술분야별 기술거래전문가 검색 등 특허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사이트

기존에는 분기별로 1회에 한하여 선별된, 우수한 특허기술만 경매를 추진하여 경매대상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새롭게 선보인 시스템에서는 “원하는 기술을 원하는 시기에 누구나 경매로 거래” 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IP-Mart 회원이라면 누구나 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을 원하는 시점부터 1달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다른 관련 특허들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경매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국제특허심사팀' 출범

특허청은 PCT 국제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내에 국제특허심사팀을 신설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 1999년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개시한 이래, PCT 국제조사의 퇴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이 국제조사의 퇴건수에 있어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청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HP, MS, INTEL 등이 2006년 이후 의뢰건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현재 특허청 심사관은 국내 특허를 심사하면서 동일 기술분야의 PCT 국제조사업무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국제특허심사팀에 소속되는 심사관은 PCT 국제조사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국제특허심사팀은 우선 의뢰건수가 많은 바이오, 의약, 신소재 및 의료전자기기의 4개 파트, 27명의 심사관으로 출범하는데, 향후 성과가 좋으면 전담분야 및 전담심사관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역량 심화교육 추진”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력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러닝을 통한 '중소기업 특허역량 심화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허역량 심화교육'은 개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수준 및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재권 교육을 지향한다.

즉, 교육대상 기업의 특허수준 분석 내용과 교육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개별 기업단위의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5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네 번에 걸친 오프라인 교육에는 기업의 특허전문가와 최고의 변리사가 강사로 현장에 파견되어 개별 기업의 실정과 목표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허청,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특허청은 2005년부터 도입·실시해온 BSC(균형성과지표) 기반의 성과관리 업무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제도 개선사항을 전체적인 틀에서 재설계하고,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특허청 고유의 성과관리체계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고 성과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